http://dx.doi.org/10.14400/JDC.2014.12.11.23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분석

이혜숙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Analysis of Operational Competency of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

Hyea-Sook Lee
Phd Courses, Dept. of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 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변수는 (1)예술성, (2)공연의 편의성, (3)조직관리이고, 성과변수는 (4)운영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 문화예술기관별로 예술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공연의 편의성, 조직관리, 운영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진정한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예술성의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운영성과 및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순위는 예술성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운영성과, 조직관리, 공연의 편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공연의 편의성, 조직관리, 예술성 순으로 역량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공공, 문화예술, 공연, 예술성, 조직관리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ans of activation of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in the future through analysis of the operational competency of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variables in the operational competency of the existing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are found to be (1)artistic value, (2)convenience and (3)organization management while the performance variable includes (4) operational performance. Secondly, although there is no major difference in the artistic value for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other variables, namely, convenience, organiz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al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different between the institution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pursue activation of operational performances and industry through differentiation of the contents of the artistic value in order to achieve real progress in the culture and the arts industry in the future.

Key Words : Public, Culture & Arts, Performance, Artistic Value, Organization Management

Received 13 September 2014, Revised 22 October 2014
Accepted 20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Hyea-Sook Lee(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Email: musiclinic@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21세기 문화의 시대 도래와 함께 1980년대 경제 발전기를 거치면서 국민소득의 증대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대와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 들어 주 5일제 근무와 주 5일제 수업의 확대 실시로 인한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6].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대하였고, 지자체장 및 문화단체장의 문화마인드를 기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관주도의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적인 문화와 예술의 창조 및 전문적인 운영, 경영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13].

특히,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서비스를 향유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경제력의 취약함과 문화예술서비스의 향유 역량의 부족, 문화예술 서비스 시장의 미성숙, 전문성 부족에 의한 운영 미숙 등의 요인들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2].

현재 국내에 분포하고 있는 214개소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전국 평균 유료 관객률이 20.13%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22].

이로 인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은 정부의 자금이 2009년 전체예산에서 78%이상 차지하고,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재정자립도는 14.9%에 불과하다[17].

이러한 공공 문화예술기관 운영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보다 이상적인 운영제도를 도입하는 현실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분석을 토대로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으로 정해보고자 한다.

만약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직접적으로는 분석대상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합리화 제고효과 및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214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합리화 방안에 중요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문헌조사방법에 의지하고,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분석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범위는 국내 214개 공공 문화예술기관 중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8개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의의

문화예술(文化藝術)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이다.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문학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악예술 등 예술을 포함한 문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24].

공공(Public)이란 국가기관과 실제적이며 잠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적집단의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다[15].

그리고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4].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위해 만든 기관으로, 기업이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기관의 한 분야로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성의 의미는 사회 일반이나 여러 단체들이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성질로[23]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쳐야 함을 뜻한다.

비영리적인 특수한 성격을 가진 문화예술기관은 문화예술 소비자인 고객이 있고, 인사업무, 조직업무, 시설관리, 예술가관리, 작품생산 등 경영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예술기관의 경영기법 도입이 문화선진국으로 도

약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기관은 새롭게 주어진 환경과 요구의 대처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활양식으로 표현된 한 나라의 경쟁력과 사회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 문화예술기관 관련법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관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고 명문화 시켰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 덧붙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대 국민 공공서비스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서비스를 직접 생산 및 공급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정신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구분은「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정보제공시설로 구분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2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실태

국내 공공 문화예술기관은 총 214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2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북이 25개소, 전남, 경남이 각각 19개소, 강원이 18개소, 전북이 17개소, 서울이 16개소, 충남이 15개소, 충북이 13개소, 부산이 10개소, 대구가 9개소, 인천이 8개소, 광주가 7개소, 울산이 4개소, 대전이 3개소, 제주가 2개소, 세종이 1개소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22].

문화예술기관은 전북지역 교육기관에서 설립한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은 16개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은 193개이다.

운영주체비율은 기초자치 단체 소속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가 117개(65.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공기업 20개(11.2%), 재단법인 20개(11.29%), 광역자치단체와 사단법인이 각9개(5.1%)등의 순이었다. 위탁운영, 민간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는 13%정도였다. 또한 178개 문화예술기관 중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146개(82%),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32개(17%)이며, 설립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126개(70.8%), 위탁 운영하는 문예회관이 52개(29.2%)이다.

공연시설 중에서 문예회관 사무실이나 연습실을 두고 있는 공연단체의 현황을 보면 131개 문예회관 중 69개의 문예회관에 공연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회관과 입주 공연단체 현황을 보면, 전속단체만 있는 경우 12개 문예회관(43개 단체), 상주단체만 있는 경우 7개 문예회관(14개 단체), 입주단체만 있는 경우 34개 문예회관(104개 단체), 전속단체와 입주단체가 있는 경우 4개 문예회관(23개 단체), 상주단체와 입주단체가 있는 경우 4개 문예회관(18개 단체)으로 나타났다. 그 외 70개의 문예회관에는 입주해서 활동하는 공연단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연도별 공연 및 행사 건수는 문화예술기관 평균 2007년 157.8건에서 2008년 141,5건, 2009년 128.2건으로 감소하였고, 공연 및 기타행사 일수는 2007년 213.7일에서 2008년 197.5일. 2009년 166.2일로 감소하였다. 공연 및 기타행사 횟수도 문화예술기관 평균 2007년 245.5회에서 2008년 229.2회, 2009년 210.5회로 감소하여 문화예술기관 평균 공연 및 기타행사 건수일수, 횟수 모두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문화예술기관 12개 중 7개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5개가 재단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운영주체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재단법인이 비교적 재정규모가 큰 문화예술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와 공기업, 사단법인이 50억 미만의 중소규모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문화예술기관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6년 이후 최하를 기록했으며, 2008년 18.9%에서 20009년 14.9%로 전년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

2.3 선행연구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관련 대표적인 국내외 선행연구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근수(2013)는 자신의 무용평론에서 무용공연 요소별 10점 평가시스템을 (1)관객 2점, (2)무대 3점, (3)무용가 4점, (4)감동 1점으로 제시하고 있다[4].

문화체육관광부(2012.12)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설문분야를 (1)예술행사 관람 선택 기준 분야, (2)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분야, (3)예술행사 보완 분야 등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20].

문화체육관광부(2012)는 조직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기부를 크게 (1)개인기부와 (2)기업기부로 나누고 있다[19].

조기숙(2012)은 창의성을 통한 몸과 경영의 통섭적 고찰에서 무용공연에 관한 관객감동이 구성요소를 소프트웨어적인 요인, 하드웨어적인 요인, 휴먼웨어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5].

서휘석, 류지원(2012)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에 따른 성과 분석에서 성과요인을 (1)공공성, (2)경영성, (3)전문성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차제 및 기초지자체 직영, 공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교육기관 운영 주체별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는 지정 기부금, 실명제 기부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기부금 활성화 방안의 핵심적인 전략을 (1)기부금 실명제 및 (2)지정 기부금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16].

윤형호(2011)는 서울역사박물관 재정자립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정자립도를 위한 설문조사 분야를 (1)마케팅 분야, (2)교육프로그램 분야, (3)조직 및 인력분야, (4)기타 분 등으로 설정하고 설문을 시도하였다[8].

이병일(2011.8)은 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의 영향 요인을 (1)지역특성에, (2)문화기반, (3)접근성, (4)문화회관 특성, (5)지방 단체장 특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로는 (1)객석점유도, (2)공연장 가동률, (3)공연장 수익률로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1].

서휘석, 이주연, 류지원(2008)은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분야를 (1)방문객 분야, (2)조직 분야, (3)전문성 분야, (4)재정 분야, (5)시설 분야, (6)프로그램 분야, (7)네트워크 분야 등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6].

이은미(2007)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평가시스템 구축에서 평가항목을 (1)공공성 분야, (2)예술성 분야, (3)경영효율성 분야 등으로 보고 평가하였다[3].

Jackie Bailey and Lance Richardson(2011)은 예술 자체평가를 위한 호주와 영국의 예술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에서 주요 평가요소의 범위를 (1)예술의 우수성, (2)예술 양식 개발 등 새로운 시도 및 혁신, (3)다른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새로운 운영방식, (4)관객의 관리, (5)교육 및 봉사활동, (6)예술분야에서 여타 국가 대비 스코틀랜드의 문화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리드십, (7)재정관리로 제안하였다[10].

Jackie Bailey(2009)는 호주의 예술위원회의 예술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 요소를 (1)공연의 예술적인 탁월성, (2)관람객의 참여와 자극 정도, (3)예술의 보존가치 및 계발을 위한 혁신성, (4)예술가의 예술성, (5)커뮤니티 관련 사항으로 설정하고 평가하였다[9].

Radbourne, Jennifer(2001)는 예술센터의 수요를 위한 새로운 풀 하우스 이론에서 예술 경영의 성공요소를 (1)예술분야의 경험, (2)마케팅 기술, (3)재정운영 경험, (4)혁신, (5)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발전, (6)리더십, (7)공동체의 지지, (8)인내성, (9)비전, (10)지속적인 교육으로 제안하였다[12].

3. 연구설계

3.1 분석의 틀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 연구의 분석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의 틀은 앞의 공공 문화예술기관 관련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요인변수 및 성과변수를 종합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즉,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는 앞서 소개된 선행연구 중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역량 변수를 벤치마킹하여 설정하고자 한다[11].

조사된 선행연구에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변수의 연구 사례 빈도 분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Classification	Structural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Operational competency variable	Artistic Value	Performance Program
		Quality of Work
		Emotional Fulfillment
		Performer
		Performance Stage
	performance & Convenience	Customer Service
		Convenience Facility
		Accessibility
	Organization Management	Work Management
		Budget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Facilities Management
		management of Contracting Out to Private Sector
		Management of Partner Institution
		Leadership
		Planning Specialist
		Arts Specialist
		Marketing
		Brand
Operational Performance variable	Operational Performanc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Donation
		Earnings Ratio from Performance
		Operational Rate of Performance Hall
		Ticket-Sales Ratio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역량 분석 틀을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대비 차이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변수들은 특정 연구자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관련 연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변수들의 연구 빈도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변수들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통상적으로 역량변수의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셋째, 종속변수에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성과 변수는 재정자립도, 기부금, 공연장수익률, 공연장 가동률, 객석 점유율 등 변수를 활용고자 하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매출액, 이윤, 비용 등 재무적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3.2 가설설정

이 연구의 분석 틀인 <Table 1>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운영역량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예술성 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공연의 편의성 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조직관리 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운영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첫째, 예술성은 예술작품이 지닌 예술적인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의식을 시공간 예술로 승화시켜 감동을 자아내는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예술성의 조작적 정의는 '관객을 감동시키는 예술의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측정변수로는 공연프로그램의 기획력, 작품성, 호응도, 공연자 유명도, 무대시설로 정한다.

둘째, 공연의 편의성은 관객을 공연장까지 유인하는 1차적 성질이라 말할 수 있고, 그 특성으로는 공연작품에 대한 호감과 공연장 방문에 대한 편리함이 관객의 심리를 작용 시킨다. 따라서 공연의 편의성 조작적 정의는 '관객을 공연장까지 유인하는 편하고 좋은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측정변수로는 고객 서비스, 편의시설, 접근성으로 정한다.

셋째, 조직관리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공급자로서 일반적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문화예술기관의 전문적인 특수성이 고려된 업무관리, 예산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 위탁관리, 파트너기관 관리, 리더십, 기획전문가. 예술전문가, 마케팅, 브랜드로 정의하고자 한다.

넷째, 운영성과는 재정자립도, 기부금조성률, 공연장 수익률, 공연장 가동률, 객석 점유율로 정의하고자 한다.

3.3 조사설계

이 연구에서 조사 모집단은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문화예술기관 수는 전년대비 8.9%인 17개 기관이 증가한 209개 기관이다.

표본 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에서도 편의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표본추출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응답에 협조하는 대상들만 조사하게 됨으로써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모두 공공 문화예술 관련 실무자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 문화예술 관련 설문에 대한 타당성을 크게 위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한 8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316명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조사방법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직접 방문을 통한 면대면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 부수는 모두 316부 였으나, 이 중에서 결측치, 무응답, 성의 없는 응답, 편향성 등의 설문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에 활용된 최종 설문 부수는 307부이다.

이와 같이 최종 분석에 활용한 307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실무자 설문 자료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Distribution of Retrieved Questionnaire Survey

Classification	No. of questionnaire Surveys	Proportion(%)
Anyang Art Center	60	19.5
Hwaseong & Banseok Art Hall	45	14.7
Anseong Culture & Art Center	17	5.5
Ansan Arts Center	49	16.0
Uijeongbu Arts Center	20	6.5
Gyeonggi Arts Center	43	14.0
Gwacheon Culture & Art Center	36	11.7
Suwon SK Atrium	37	12.1
Total	307	100.0

4. 실증분석

4.1 역량 분석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역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307부의 구조화된 25개의 측정항목을 토대로 SPSS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제1차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 적재량이 고객서비스, 마케팅, 브랜드, 리더십, 마케팅 전문가, 객석 점유율인 6개 측정변수가 0.55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변수를 토대로 제2차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적재량은 <Table 3>과 같이 모두 기준치 0.55 이상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Classification	Artistic Value	performance & Convenience	Organization Management	Operational Performance
Planning Capability	0.703	0.445	0.282	0.095
Quality of Work	0.721	0.475	0.225	0.129
Compliance Rate	0.698	0.431	0.228	0.104
Specialization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0.742	-0.058	0.330	0.124
Specialization of the Planning Personnel	0.621	0.189	0.262	0.413
Operational Rte of Performance Hall	0.571	0.203	0.135	0.376
Well-Known Performer	0.291	0.600	0.172	0.241
Stage Facility	0.111	0.742	0.111	0.307
Stage Facility	0.231	0.658	0.236	0.058
Parking Facility	0.171	0.680	0.390	0.255
Facility Management	0.172	0.433	0.595	0.023
Personnel Management	0.285	0.159	0.734	0.345
Work Management	0.260	0.183	0.749	0.312
Consigned Management	0.251	0.254	0.751	0.251
Management of Partner Institution	0.327	0.227	0.688	0.246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0.120	0.207	0.286	0.835
Donation	0.125	0.271	0.409	0.755
Ernings Ratio from Performance	0.371	0.189	0.168	0.741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Factor rotation was converged in the 6th recursive calculation				

요인분석 결과, 대각항을 중심으로 표시된 요인 적재량은 모두 최소 0.571 이상으로 나타나 허용치인 0.55를 초과하여 요인 적재량 값은 대부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요인적재량의 최소 기준치는 0.4 이상이나 여기서는 보다 엄격하게 0.55를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이 연구의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요인변수는 (1)예술성, (2)공연의 편의성, (3)조직관리이고, 성과변수는 (4)운영성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요인 분석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역량 요인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f convergent validity

Structural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Factor Loading	Concept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ion	Cronbach's α
Artistic value	Planning Capability	0.703	0.891	0.583	0.890
	Quality of Work	0.721			
	Compliance Rate	0.698			
	Specialization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0.742			
	Specialization of the Planning Personnel	0.621			
	Operational Rte of Performance Hall	0.571			
performance & Convenience	Well-Known Performer	0.600	0.795	0.495	0.791
	Stage Facility	0.742			
	Stage Facility	0.658			
	Parking Facility	0.680			
Organization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0.595	0.881	0.713	0.884
	Personnel Management	0.734			
	Work Management	0.749			
	Consigned Management	0.751			
	Management of Partner Institution	0.688			
Operational Performanc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0.835	0.891	0.623	0.878
	Donation	0.755			
	Ernings Ratio from Performance	0.741			

요인분석 결과,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은 각각 0.7과 0.5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공연 및 편의성의 평균분산추출이 0.495로 낮게 나타났으나 소수점 1자리 수로 반올림을 하면 0.5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고 분석에 임하고자 한다.

평균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 이용하였고, 크론바하 알파 계수 값은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크롬바하 알파 값은 모두 0.791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7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변수에 대한 적합도와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4.2 차별성 분석

앞서 이 연구의 연구설계에서 설정된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운영역량의 차별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을 검정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둘 이상인 경우에 모비율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정하는 범주형 자료 분석에는 χ2-검정 방법을 따른다.

기관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라는 세 집단 이상 간에 운영역량 요인의 차별성 검정은 χ2-검정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1)안양문화센터, (2)화성·반석아트홀, (3)안성문예회관, (4)안산문화예술의 전당, (5)의정부예술의 전당, (6)경기도문화의 전당, (7)과천시민회관, (8)수원SK아트리움 등 8개 문화예술기관의 실무 응답자 수는 307명이다. 이들 8개 집단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요인 및 성과의 차별화 여부를 검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예술성의 차별화 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Verification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artistic value of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Classification	Value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Probability
Chi-square	1,090.022	1,043	.152

검정 결과, χ2값 1,090.0에 자유도 1,043에서 p= 0.152 > α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o를 수락하고, 대립가설 H1을 기각하고 있다. 즉,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예술성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예술성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별 차별화된 지원정책보다 일관적인 지원정책이 바람직함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공연 및 편의성의 차별화

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Verification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performance & convenience of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Classification	Value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Probability
Chi-square	880.491	770	.003

검정 결과, χ2값 880.5에 자유도 770에서 p= 0.003 < α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o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1을 수락하고 있다. 즉,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공연 및 편의성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조직관리의 차별화 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Verification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organization management of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Classification	Value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Probability
Chi-square	814.855	749	.047

검정 결과, χ2값 814.9에 자유도 749에서 p= 0.047 < α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o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1을 수락하고 있다. 즉,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조직관리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운영성과의 차별화 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Verification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Classification	Value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Probability
Chi-square	433.147	343	.001

검정 결과, χ2값 433.1에 자유도 343에서 p= 0.001 < α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o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1을 수락하고 있다. 즉,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운영성과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공공 문화예술기관별 운영역량 요인과 운영성과의 차별화 여부를 검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9〉 Results of verification of hypothesis

Serial No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1	Hypothesis 1: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the artistic values for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dismissal
2	Hypothesis 1: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 the convenience for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acceptance
3	Hypothesis 1: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the organization management for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acceptance
4	Hypothesis 1: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for each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s..	acceptance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별로 예술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공연 및 편의성, 조직관리, 운영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진정한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성의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운영성과 및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 운영역량 순위 분석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순위 파악은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평균값을 활용하고 참고치로 운영역량별 표준편차 값을 활용하고자 한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0〉 Order of the Operational Competencies of the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

Classification	Artistic Value	performance & Convenience	Organization Management	Operational Performance
Rank	1st priority	4th priority	3rd priority	2nd priority
Average	2.448	2.308	2.392	2.430
Standard Deviation	0.497	0.550	0.542	0.704

표에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순위는 예술성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운영성과, 조직관리, 공연 및 편

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공연 및 편의성, 조직관리, 예술성 순으로 역량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5. 결론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변수는 (1)예술성, (2)공연의 편의성, (3)조직관리이고, 성과변수는 (4)운영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 문화예술기관별로 예술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공연의 편의성, 조직관리, 운영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성의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운영성과 및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순위는 예술성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운영성과, 조직관리, 공연의 편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공연의 편의성, 조직관리, 예술성 순으로 역량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오늘날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은 여전히 무료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에 채산성이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 문화예술기관 운영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보다 이상적인 운영제도를 도입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본 점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 결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8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전국에 분포한 214개 공공문화예술기관을 분석의 모집단으로 설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수도권 소재 공공 문화예술기관을 표본으로 하는 설문조사 분석에 국한하고, 국내 공공 문화예술기관 관련 문헌자료인 2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 및 범위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분석에 국한되다보니 운영 역량과 성과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 분석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시간과 예산이 허락된다면 후속적인 연구는 (1)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2)공공 문화예술기관의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 (3)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과 운영성과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 분석 등에 대한 연구까지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Byeong-Il Lee,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operational performances of performance & culture facilitie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Ph.D. Degree thesis for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Kyunghee University, 2011.8.

[2] Cheol-Soon Lee, “Study on the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the public culture and arts services: with focus on the culture &arts centers as the cultural infrastructures“, Research in government studies, Vol. 16, No. 2, pp.271-305, 2010.

[3] Eun-Mi Le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 Ph.D. Degree thesis for maj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7.

[4] Geun-Soo Lee, “Criticism of dance by Lee, Geun Soo: 10-point Evaluation System II for each of the elements of dance performances”, Seoul Culture Today, 2013.12.25.

[5] Gi-Sook Cho, Consilient consideration of body and management through creativity,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 and Technologies, Ph.D. Degree thesis, 2012.

[6] Hui-Seok Seo, Lee, Ju-Yeon Ji-Won Ryu, "Study on the strategy for activation of culture & arts centers of primary autonomous local government: with focus on the Iksan Somli Arts Center", Journal of Korea Autonomous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ssociation, Vol. 22, No. 2, pp.211-233, 2008.

[7] Hui-Seok Seo, Ji-Won Ryu, "Analysis of performanc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al of the operation of culture & arts centers", Journal of Korea Autonomous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ssociation, Book No. 26, Issue No. 3, pp.65-88, 2012.

[8] Hyeong-Ho Yoon, Means of improving financial self-sufficiency of the Seoul History Museum,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11.

[9] Jackie Bailey, "Defining Artistic Vibrancy: A Discussion Paper for the Major Performing Arts Sector",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p.8. of 1-10, 2009.

[10] Jackie Bailey and Lance Richardson, "Meaningful measur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Australian and British case studies of arts organizations conducting artistic self-assessment", Cultural Trends; p.300 of 291-306, 2010.

[11] Jong-Bok Park, Yoon-Ae Cho, Sang-Gyu Lee, Yeol-Yong Seong, Young-Gwan Kwon, Means of activation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the private sector, Research Report by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1.

[12] Radbourne Jennifer, Full house theory: A new theory for assessing demand for arts centers,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pp.254-267, 2001.

[13] Woong Moon, Study on the means of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public performance halls, Ph.D. Degree thesis for major in Arts Manage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06.8.

[14] Yang-Yeol Kim, Chung-Gi Min, Seon-Hee Yoon, Statistics of business economics, Myungkyungsa press, 2006.

[15] Ye-Jin Shin, Method of approaching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of the national and public performance halls, Chugye University for Arts, p.18, 2004.

[16] Arts Counsel of Korea, Study on the means of activation of projects for designated donation and donation under real-name transaction system, 2011.

[17]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of culture & art centers in 2009, 2010.

[18]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of culture & arts centers in 2010, 2011.

[19]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Study on the means of activation of donation in the area of culture and arts from the perspectives of organization, 2012.

[20]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Survey on the realities of cultural nostalgia, 2012.12.

[21]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Survey on the realities of performance art, 2013.

[22]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Comprehensive survey of cultural infrastructures throughout the country, 2013.

[23] Naver Korean Dictionary, www.krdic,naver.com.

[24]] Wikipedia, http://ko.wikipedia.org/.

이 혜 숙(Lee, Hyea Sook)

- 1987년 8월 : 동덕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음악교육 학사)
- 1999년 8월 : 동덕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음악학 석사)
- 2009년 9월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
- 1998년 2월 ~ 2004년 12월 : 해암아트홀(공연장) 대표
- 2006년 9월 ~ 2011년 8월 : (디)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기관운영.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교육.
- E-Mail : musiclinic@hanmail.net